

2023.4.23.(주일) 마태복음 5:9 팔복산의 상속자 김양재 목사님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재벌의 상속자 되는 것만도 기가 막힌데 우리가 이제 <팔복산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해요. 오늘 그 팔복산의 상속자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한 주 쉬었더니 멀리멀리 갔어요.^^ 계속해서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팔복산에서 가난한 자가 누릴 **애통**과 **온유**와 **의에 주림**으로 배가 부르게 되고, 또 팔복산의 통로인 **공홀**로 팔복산의 시력인 **청결**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청결함으로 오늘 화평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상속자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주 이 화평은 수준 높은 복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날마다 식기도 할 때마다 말씀은 하나도 모르니까 “어머니와 남편이 화내지 않고 화평하게 해주세요.” 오직 그 기도만 한 게 기억이 나는 것이 군대 같으면 시집살이니까 꼬박 하루에 세 번은 식기도를 하는 거죠. 그 눈 감아야 되잖아요. 정말 제가 화평을 읊조렸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속자의 화평과는 개념이 너무 다른! 그런 화평하게 해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오늘은 팔복산의 상속자가 되는 일곱째 복!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팔복산의 상속자는 첫째,

1. 상대와 함께 화평을 누립니다.(9)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싸움과 갈등을 없앤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이런 것이었어요. 로마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로마의 뜻을 거스를 대적이 없는 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였어요. 근데 이것은 **로마 입장에서만 평화**라고 할 수 있을 뿐 제압당한 상대 입장에서는 절대 평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옛날 중국의 중화사상이나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도 같은 부류인데요. 독일의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은 전 세계에서는 천인공노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는 고대 3대 문명을 멸망시킨 아리안족이 자기 민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그때 많이 제패했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부유해 지면은 이제 이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계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거침이 되는 민족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인종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독일이 잘 살다 보니까 반유대주의에 다 깊이 가담해가지고 이 600만 명을 죽이는데 온 나라가 그냥 동참을 한 거예요. 정말 기차로 태워다 주고, 우편으로, 행정기관, 은행, 교회 등등이 저항없이 이 일에 다 동참을 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그들을 죽이는 거는 개종해도 소용없고, 3대 혹은 4대 위에라도 유대인

조부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조부가 1871년 1월 18일 이전에 개종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몰살당하였어요.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다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독일은 승승장구해서 화평했겠지만 이거 유대인들은 아주 참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나, 내 가족, 내 고향, 내 나라는 톨톨 뭉쳐서 자국의 이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 [에이레노 포이오스]는 워낙 [에이레네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요.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이 세상은 인간 사이나, 나라 사이나, 생태계나 이미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며 평화가 복원되어야 하는 세상임을 전제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기 편이 말하면 “무조건 옳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난하고 살기 힘든 때에 다들 교회로 피하니까 유례없는 기독교의 번성을 가져왔는데요. 번영을 주시니까 인권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제가 태어나서 가장 무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림을 받는 것은 핍박 받을 때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피해의식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문제만 났다하면 기독교라고 지금 부각이 되어지고, 실제로 눈살을 찌푸릴 일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원죄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 거예요. 빌라도가 “나는 저 사람 못 죽이겠다.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도 좋으니 예수를 꼭 죽여라!”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사람이 죄를 모르면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결국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2천년 동안 예수님 죽인 값을 지금 톡톡히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고도 살아남기를 바랐네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하고 화해할 때 항상 힘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잖아요. 돈, 성격, 외모... 여하튼 어떤 힘이 조금이라도 더 센 사람이 정한 질서에 따라 다른 한쪽이 양보하면 겉으로는 화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던 쪽이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또 화해하고, 또 싸우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부부 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반복을 부부 사이의 화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한 화평은 다투고 대립하던 양쪽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질서에 따른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힘 있는 어느 누구의 질서가 아닌!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기준이 된 것이 가장 완전한 조화이고, 이것을 화평!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질서도 마찬가지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이게 질서고, 이게 화평의 원천인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지 말아야 할 일시적인 화평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읽어 보면 (마태복음 10:34-37)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집안에서 싸울 수 있죠. 근데 복음 없이 화평해지는 것은 영원한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예요. 이 싸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싸움만 그치는 것을 오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Think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가족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연민, 위장된 감정, 일시적 화평이 깨지는 것을 생각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깨져야 될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핏줄 타령을 하는 한국에서도 하여튼 식구들끼리 죽이고 다투는 사건이 날마다 뉴스에 나와요. 바로 그 핏줄 타령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요. 인간적인 화평을 원하면서 그 가족에게 집착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한국이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정 때문에 다 망해요. 그러니까 정이 많으니까 기대하는 게 많고, 그래서 분노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새엄마, 새아버지가 잘해도 핏줄은 마지막에는 저절로 뭉치는 것이 있잖아요. 남북 이산 찾기만 봐도 핏줄만 다 찾아요. 재혼한 남편, 아내는 안 찾아요.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도 서로 거의 안 찾더라고. 핏줄만 다 찾아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혼은 3,4대로 온 가족이 원수가 되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아주 멘탈이 붕괴되는 걸 수없이 봐요. 나 혼자 좀 잘 살겠다고. 정말 아주 이게 교과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권세와 재물을 포기하면요. 싸움도 복음 때문에 담대해지고 진정한 평화가 넘칩니다.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주님은 일시적인 화평을 깰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 적용 질문이에요.

Q. 여러분의 화평은 한 쪽 짜리 이기적 화평입니까? 양쪽의 이타적인 화평입니까?

Q.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주일을 어기는 배우자, 자녀를 못 본 체합니까?

Q.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Q. 백마디 듣기 좋은 말은 한마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실천하십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겨운가 봐요. 맨날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니까.

한 목자님의 대구 아버님이 계신데 갑자기 아버님이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하시길래 “무슨 꿈을 꾸셨냐?”고 물어보니 하나님도 보이고 부처님도 보인다고 했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양쪽의 화평을 그렇게 부처님, 하나님에게서 찾으시면 안 돼요. 화평을 원한다고 부처님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이건 **깨어야 할 화평**이에요. 아셨죠? 이 아버님 꼭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이 세례받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꼭 순종해서 세례 받으세요.

팔복산의 상속자 두 번째,

2.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룹니다.(9)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동사형이 또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1:20)

화목케 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한 사람이 죽어지고 썩어지고 밀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화목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8:17) 이 구절이 '하나님의 상속자'란 단어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을 받는 상속자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상속자는 함께 받아야 될 것이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 부활에 이르기 위한 죽음! 영생의 면류관을 쓰기 위한 이 십자가의 가시관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받으니 힘들지만 우리가 그 따라갈 모델이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2장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야고보서2:5)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이걸 명령으로 들어야 해요. 여러분 무엇이 가난합니까? 재물, 용모, 스펙... 여러 가지 환경 등 자기가 인정받는 부분에서 가난해지거란 인간의 죄성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모 때문에 망하고, 재물 때문에 망하고, 권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난해지지 않거든요, 가진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이 인생의 원수 같은가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하고 살고 있다면 훨씬 최고의 신랑이신 주님을 사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휴~ 정말 남편 때문에 가난해야 되고, 아내 때문에 가난해야 돼요! 할렐루야!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큼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보이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자꾸 바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 신랑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쳐서 쓰세요. 그냥. 진짜 어딜 가도 없어요. 다 똑같애. 다 똑같애. 그걸 왜 몰라요? 술 먹고 뭐 별 짓 다 해도 첫 결혼을 지키는 것을 이 땅에서 **십자가로 화평케 하사!** 그게 최고의 신랑 만나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박차고 이렇게 자꾸 이혼을 빨리 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요.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나의 분신 같은 자녀를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으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근데 내 자녀의 품질이 좋으면 또 교만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품질이 나빠도 열등감으로 다툼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 썩어질 것을 버림으로 얻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처형장으로 가는 나의 처형장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 해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화평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화평을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2천 년 동안 핍박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들이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잡혀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정말 인간 청소하듯이 잡아왔어요. 그 히틀러는 아주 그 외에도 열등한 인종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장애우들부터 해서 1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갈면서.. 그러니까 다 잡혀왔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이 가스실에서 한결같이 항거하지 않고 다 조용히 죽어갔대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종전 후에 그것 때문에 세계는 또 놀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순종하면서 가스실에서 아무도 “내가!! 왜 죽어!!” 이러지 않고, 그럼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한 걸까요? 전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잖아요. 전 세계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유대인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친족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 그다지도 기도했지만 그 기가 막힌 학살을 당했는데도...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가정 교육을 외치며 앞다퉈 가며 탈무드, 토라를 읽혀요. 세계도 그들이 부자이고, 똑똑하기에 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유대인'하면 뭔가 그냥 다 환상이 있어요. 그들이 또 세계 경제를 주름 잡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도 믿고, 다윗도 믿고, 모세도 다 믿는데... 사생아이고 목수인 게다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 집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최고여야 되니까.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는 이미 지나간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그릇 중에 금그릇인 그들은 영육간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들을 굉장히 겉으로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된 민족이라고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몰살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히틀러가 이단처럼 그렇게 해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으로 지금 핍박당하는 것만 억울해요. 그 유대인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일하실 텐데 저 참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안 믿어지는 게 예수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2천 년 동안... 유대인.. 베니스의 상인 샤일로 아시죠? 나쁜 모델은 다 유대인이야. 그런데도 그냥 너무 잘 살아남아 있고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어요. ‘야! 2천 년을 무시당해도 못 믿는 게 예수님이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차이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행위로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행위 구원을 외치면 따라갈 자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남편은 행위 구원을 부르짖었어요. 정말 구원은 선물 중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총리 요셉과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의 차이와 비슷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유다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 ‘유다와 요셉을 이해했냐?’는 질문에 대한 지난주 나눔 몇 가지

지난주에 제가 ‘유다와 요셉을 이해했냐?’는 질문을 드렸지요. 몇 개를 골라서 읽어 드리겠어요.

① 어렸을 때 성경학교 퀴즈할 때 ‘성경에서 가장 존경한 인물이 누구냐?’고 해서 손들고 “유다요!” 그랬대요. 유다가 우리 ‘유씨’인 줄 알고 그랬대요. 이분의 이름이 유진주예요.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 어저께 결혼식 주례하러 왔는데 엘리 베이터에서 딱 만났어요. 글썄~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유진주라고 그래서 “어머나 유다! 유다의 후손?” 그랬더니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 ^^;;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대답 잘했잖아요? 그걸 우리들교회에 와서 답을 찾았어요. 이 분이 후에 요셉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미리 했던 싹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결국, 이분도 “행위로 유다가 구원받을 만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② 또 한 분은 “성경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아니~ 근데 사람으로서 이거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며느리와 동침했다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버린 형들을 솔직히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돌봐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봐주신 거예요.” (뭘 안 봐줬어요?! ㅎㅎㅎ ^^;;) “자기 죄를 못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행위를 못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며느리하고 동침한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냐?!!“ 지금 이러는 거죠.

③ 또 한 분은 “어떻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데 ‘콩가루 가족’이라 그럴 수가 있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야곱 시대가 지금부터 3천 년 전인데 고대 시대예요. 그

시대와 현시대를 비교한다는 거는 이상합니다~ 당시에는 당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구속사는 이해가 간대요, (뭐가 가세요? ^^::)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목자, 부목자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눔을 지금 하셨어요.

④ 또 한 분은 “선데이 서울에서 나올 법한 19금 같은 이야기라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인간말종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제가 바른생활과 이다 보니까 더욱 이해가 안 됐고, 저는 돈 많고 따뜻한 요셉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요셉이 되고자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같다.”고. (이건 그래도 말씀하셨네요.)

⑤ 또 한 분은 “저는 구원을 위한 추상적인 그런 거 사명감이 없어요. 저는 공동체에 붙어 가는 것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의 팔복산과 기복산을 놓고 설교하시는 이 기간이 제게는 고통이에요. ‘어떻게 저게 다를 수가 있지?’” 어떻게 기복산, 팔복산이 다를 수가 있냐고 그래요. 이 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기도 할 때는 ‘아이디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앞뒤가 안 맞는 것만 하신다고~~’ 저는 구원을 위한 추상적인 그런 거에는 사명감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알아도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남편의 사고, 딸의 사건은 고것만! 내 인생의 구속사로 받아들여집니다. 고것만!! 그래서 예전에는 떠날 궁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었던 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지요.”

이렇게 아주 다들 솔직하게 나누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very much.

참,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이 참 별것 아닌 것 같고 카멜레온처럼 세상으로 자꾸 한쪽 눈이 돌아가지만 그래도 날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망할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큐티하고, 목장 가고, 예배드리는 것이 119구급차에 올라탄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차를 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못생기고, 집이 없고, 망하고, 분조장이라도 같이 입성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내 열심, 헌신, 구제, 성품~~ 아무리 훌륭해도 이 구원 열차, 팔복 열차에서 내리면 꺾이예요. 그냥 끝까지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믿음으로! “아! 이 열차 타고 천국 가겠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자꾸 잘잘못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수많은 고난을 제가 겪으면서.. 내가 정말 남편한테 매까지 맞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안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이게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걸 못 견뎌 하잖아요.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겪고 여기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가 늘 견디고 지금 통과하면서 가는데. 진짜 그게 진짜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 적용 질문이에요.

Q. 여러분의 집은 자녀가 문제아입니까, 부모가 문제아입니까?

Q. 독일이 더 나쁘니까, 유대인들이 더 나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독일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진짜 수고했어요. 그래도 독일은 전쟁 후에 사죄했잖아요. 엄청나게 사죄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안 믿어요. 독일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많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 진짜 금 그릇. 금 그릇. 이게 유대인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과 공동상속인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화평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자, 팔복산 열차에서 내리시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팔복산의 상속자로 최고의 모델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어요? 팔복산의 상속자로 최고의 모델을 한 사람을 대라면 누구를 꼽겠어요? 누구? 누구? 아유~ 우리들교회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정말 유다를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유다!** 저는 유다를.. 뭐 해 아래 새것이 없겠지마는 유다의 구속사를 깨달으면서 **제 삶이 살아났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너무 기뻐서 소개를 그렇게 하면서 큐티 모임을 했는데. 그냥 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저를 격려하느라고 환난 당하고 빛지고 원통한 자들은 유다를 소개할 때 잘 들리죠. 그런데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그 힘이 들어요. 아주 유다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좁은 길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목자님들의 나눔을 소개해드렸듯이 이게 오래 다녀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 있죠. ^^;

그래서 팔복산의 상속자 세 번째는,

3. 정말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입니다. 이게 화평의 언어입니다.

이타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때문에 설득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항상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교회 오면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그에게 이득이 될 것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데 처음부터 희생해야 한다고 부르짖기만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눈높이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 유다같이 힘든 사람들은 오자마자 말썽이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목장에서 정~~말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 설득을 가장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는. 창세기 43장, 44장을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사건으로 깨졌죠. 며느리 사건이 뭔가 하면은, 요셉 팔아먹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고 일에 미쳤는데 그다음에 신전 창기와 놀아났는데 그 신전 창기가 며느리인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집의 씨를 잇기 위해서 이 수치스러운 걸 감당했다” 거기에 유다가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깨졌어요. 깨지고 나니까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족해도 믿음의 조상이 너무 중요한 거 알게 되고! 연약해도 영적 아버지인 야곱! “야곱 때문에 내가 예

수를 믿게 됐다!” 이게 구속사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그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 베냐민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흉년에 아이를 대신하여 내 생명을 담보하고, 요셉에게는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구원이 되면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예전에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할 때는 아주 증오심으로 복수의 감정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골고루 사랑해야지! 왜 차별하냐?!” 여러분들이 그게 따질 게 아닌데!!! 그렇지만 그들은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넣었으니까. 근데 그 요셉을 팔고 자기네들도 정죄감이 있는데.. 22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슬픔을 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도 헤어 나오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과 사랑에서 ... 이제 그 지독한 사랑, 베냐민, 요셉에 대한 사랑, 라헬에 대한 사랑... 이 사랑에서 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무언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각자 식구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가 아니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유다가 알았어요. 야곱은 여전히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유다가 조건 없이 자기를 낳아주어서 예수 믿게 해준 아버지를 이렇게 용납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껴안은 것이죠. 유다의 자기를 버리는 사랑은 그 후로 아버지와 요셉을 다 설득하고 형제들의 대화합을 이루어 내는데요. 그것이야 22년 걸려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유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편을 들어주시니까 결국 예수님까지 이 가문에서 오게 된 거예요. 요셉의 총리 되는 것보다 더 기적은 형들의 변화고, 후에 요셉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유다는 천사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유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만고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기 죄를 자꾸 보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 나눔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보고 랄랄랄라~~ 그래요. 그런데 유다 같은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모델인 거예요. 유다는 행위가 아닌 부족해도 그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유다가 화평의 모델이 맞는 것이요, 요셉은- 그 기가 막힌 요셉은- 마지막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야곱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로 끝나는 거예요. 왜죠? 자기 아들 장자, 차자인 에브라임, 므낫세를 거꾸로 어긋 맡겨 안수하는 아버지를 보고 “틀렸다”고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화를 내는 장면이 요셉과 야곱의 마지막 대화 장면이에요. 요셉은 아버지하고 마지막에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에 비해 유다는 끝까지 야곱과 요셉과 형제들을 화해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야말로 구속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시 팔복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팔복은요, 전 성경을 통해서 지금 구속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팔복만 그냥 외우시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큐티를 했으니까 토시 하나 안 빠지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를 엮어드리는 거예요.

제 남편은 생각지도 않게 제가 생명을 담보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내가 생명 내놓고 기도했나요? 근데 ‘나에게는 눈 한 번만 내가 딱 떠도 “알았어요” 하고 목숨 내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아직도 제가 “알았어요”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날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알았어요. 죄송해요.”

근데 남편은 나를 이런 목회자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제가 순종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도 공로나 자격으로 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화평케 할 만한 선이 있어서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 저에게 “알았어요” 하는 사람은 목회자도 되고, 목회도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또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다말이 자기 집안의 씨를 위해 그 수치를 감당했기 때문에 며느리보다 못한 자신을 보며 유다는 평생 겸손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행위로 보면 롯은 똑같은 사건에서 또 딸과 동침했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더 나빠요. 그죠? 그런데 롯의 딸과 롯 사이에서 나온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와 총회에 못 들어왔어요. 이것이 여러분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행위로만 보니까. 여기(다말)는 시아버지(유다)하고 동침하고, 아버지(롯)하고 동침하고. 한쪽(유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 한쪽(롯)은 이단의 총수가 됐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별 설교는 안 했겠어요? 어휴, 진짜 아주 그냥... 그래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말의 그 일은 음행이 아니고 수치를 감당하면서 영적 후손을 낳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다가 이렇게 화평의 모델이지만은 그럼에도 사는 날까지 칭송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유다는 며느리 사건 이후에 회심하고 그 후로는 말이 없어요. 그림자같이 있어요. 그리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화평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만 하면 뭐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 사람은 등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유다는 비교하지 않아요. 요셉을 시기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알아요. 주제를 알아요. 늘 입을 다물어요. 그러나 유다는 이 애굽의 총리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이 나중에 창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씨인 유다’와 ‘예수의 표상인 요셉’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형과 진짜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직계 조상 씨! 직계 후손인 유다와 요셉은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 지금은 비록 땅에서 살지만 그 예수님의 창대함! 하늘나라의 창대함을 이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길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성정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곱 번째 복인 거예요. 마지막 복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의 씨!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 그런데 아직도 “그거는 틀렸잖아! 이건 아니잖아!” 유다처럼 입을 다물어야 돼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요셉처럼 보이잖아요. **남을 올려줘야 돼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화해를 다 이루어냈잖아요. 야곱도, 요셉도, 형들도 다 화해를 이루어낸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

가난이 애통과 온유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내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이웃과의 화평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으려면 이 유다처럼 자기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정죄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신분의식,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이웃과의 화평, 중재자가 따라오는 거죠.

금요일 큐티 본문에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사건이 왔을 때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도자기를 깼는데 도자기를 깬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걸 엄마한테 말 못해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 도자기를 깬 게 뭐가 무서워요? **사건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건 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말해가지고 형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그저 모든 걸 까발리고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구원 때문에 진리와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행위의 분량이 다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말할 때는 오늘 화평이 수반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말 성도의 견인- 거룩-으로 가는 길은 끝이 없는 거예요. 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절로 화평해지잖아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다 공부하고, 학교도 잘 가고 이랬는데 이 세상에 제가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또 피아노에 미쳐서 살면 또.. 피아노도 다 뭘가 이루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 **회개를 하니깐 이 유다가 깨달아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결같이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그걸 말하고 오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처럼 이렇게 24시간은 약간 과장됐지만은 이렇게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배우자가 “너 하루종일 꿈쩍도 말고 책상에 앉아 있어!!” 이러면 이런 고문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 순종하는 거.. 이게 **다 사명은 십자가**라는 얘기에요. **어떤 것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지금 밑동 잘린 나무인데 이 짧은 인생에서 다른 나무들까지 지금 살리고 가야 하니깐 진짜 시간은 없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물과 불에 동행해 주시니까 제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주 이번 주도 그냥.. 아주 그냥 주문처럼 읊조리고 지냈어요. **별 인생이 없습니다.** 유다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 십자가 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유다를 깨닫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처방하는 것도 이 거부감이 큰 분들이 언제든지 있어왔어요. 처음에는 힘든 분들만 오니까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누가 저보고 큰 교회 목사라서 좋겠다고 하는데 좀 해보시죠? 옛날에는 거의 다 그래도 “좋다~! 좋다~! 집사님, 정말 내가 살아났어요!” 이런 분들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아주 저절로 눈물이 흘러요. **제가 상속자 맞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꼭 살아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꼭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지금까지도 요셉만 좋아하기 때문에 유다는 이름도 갖다 쓰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놈의 유다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까지 또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1인 기업의 대가인 공병호 연구소 소장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 너무 뜻밖에 단순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면 그때부터 부자의 길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난한 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남 탓으로,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이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는 손해가 아니라 부자의 비결 맞습니다! 예수님의 화평의 비결인데 복받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교회 표어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다고 합니다!

■ 적용 질문이에요.

Q. 여러분 진실이라고 까발립니까,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고 화평을 수반해서 말합니까?

“당신은 나보다 옳도다” 좀 연습이라도 좀. 아침에 한 번씩 꼭 일어나서 연습해 보세요. 거울 보고. 상대방 보고 얘기하기 너무 싫으니까 거울보고 연습을 계속하다가 한 번씩 날려보세요. 부자가 된답니다! 부자가 딱 들어오죠?^^ 부자가 돼요.

우리 ANC 미국의 온누리교회 김태영 목사님이 “우리야가 억울하게 아내 뺏기고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찬란하게 그 이름을 올리는 걸 보며, 아! 우리야가 피해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구속사구나!” 하신 거 기억나시죠? 해석을 잘 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후일에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화평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어요. 팔복산의 상속자는 상대와 함께 화평을 누립니다. 깨어져야 할 일시적인 화평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룹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게 최고의 화평의 비결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시네
 너는 내 아들 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시네
 너는 내 아들 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

기도제목 상대와 함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인 화평을 위해 영원한 화평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문제 부모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유다가 이해되는 건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애통하고 눈물이 나요. 제가 말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 유다의 구속사가 이해되게 해달라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저절로 나오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예수 믿게 해준 부모나 자녀에게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출산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복산의 상속자>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싸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 화평을.. 그 옛날에도 맨날 ‘화평케 해달라고’ 식기도 때마다 화평케 해달라고.. 그렇게 화평을 좋아하다가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루게 해달라고... 진짜 화평한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팔복산에서 화평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직도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평을 빙자해서 또 이제 말 못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 진실한 이 화평이 수반되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래저래 정말 그 화평케 하는 자! 상속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유다처럼! 저렇게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아니하며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일 때! 후일에 말할 수 없는 창대함을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예수 표상이 아니라 예수의 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인간은 100%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대책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위정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약) 2023.4.23.(주일) 마태복음 5:9 팔복산의 상속자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팔복산에서 가난한 자가 누릴 **애통**과 **온유**와 **의에 주림**으로 배가 부르게 되고, 또 팔복산의 통로인 **공홀**로 팔복산의 시력인 **청결**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청결함으로 오늘 화평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상속자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자의 화평과는 다른 의미로 화평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팔복산의 상속자가 되는 일곱째 복!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1. 상대와 함께 화평을 누립니다.

- Q. 여러분의 화평은 한 쪽짜리 이기적 화평입니까? 양쪽의 이타적인 화평입니까?
- Q.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주일을 어기는 배우자, 자녀를 못 본 체합니까?
- Q Q.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 Q. 백마디 듣기 좋은 말은 한마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실천하십니까?

2.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룹니다.

- Q. 여러분의 집은 자녀가 문제아입니까, 부모가 문제아입니까?
- Q. 독일이 더 나쁘니까, 유대인들이 더 나쁘니까?

3. 정말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입니다.

- Q. 여러분 진실이라고 까발립니까,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고 화평을 수반해서 말합니까?